

국내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과 행정학에 대한 함의: 연구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를 중심으로*

서재호**

Many researchers have turned to communities for solutions to new problems caused by the radical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of our society. However, previous community research according to academic discipline (i.e., sociology, geology, local development and engineering), and as such was not based on common conceptu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instead focusing on different aspects of communiti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community research did not gain momentum,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mmunity as a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is paper makes recommendations for community research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explorative meta-analysis on the community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papers focusing on community are still rare in public administration compared to other fields, they used qualitative methods more than quantitative approaches to methodology, and more descriptiv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rather than theoretical studies. These results imply that in order to vitalize community study in public administration, a theoretical approach is required, and quantitative research focusing on theoretically constructed variable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Community, Explorative meta analysis, Research topic]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59)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jaseo@pknu.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 후 매우 짧은 시간에 산업사회가 진행된 후 기술혁명이 초래한 정보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이 부각된 문제는 우리사회 어디서나 등장하고 있으며 개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공익의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와 공공부문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이다.¹⁾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들의 집합인 이익사회(Gesellschaft)는 새로이 부각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만 정부조차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묻지마식 사건(자살, 묻지마폭행 등) 등은 고도로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결정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예방도 어렵다. 또한 교통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결국 사회문제를 공익의 시각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공동체(community)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은 Toennies(1957)가 근대 산업사회를 분석하면서 언급한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많다. 혈연중심의 일차적 사회결합으로서 공동사회에서는 개인 차원의 문제도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로 환원되어 공동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이차적 분업관계로 인간관계를 변화시켰고 공동사회의 가족과 근린에서 존재하던 공동체의식이 개인간 금전적인 결합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산적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에서 구성원 개인들 간에 한 집단으로서 일체감을 가진 공동사회는 점차 사라지고, 합리적 개인의 이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인 대중사회로 전환되었다(Popplin, 1979).

많은 연구자들은 현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를

1)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 연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 묻지마 살인 등의 사회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개인수준의 문제 이외에도 집단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렵다.

‘공동체(community)’에서 찾고 있다. 공동체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성요소는 60여 년 전 Hillery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제시된 ‘지리적 영역, 구성원간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이다(Hillery, 1955).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리적 영역, 구성원간 상호작용 등의 공동체 구성요소가 약화되어 있음에도 영역으로서 경계,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특히 공동의 유대감과 상호 돌봄은 여전히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개념요소로(강대기, 2003),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3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진 문제해결의 책임자인 정부에게 공동체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정부는 ‘지리적 관할권’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에서 개인과 시민사회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운영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된 국내의 다양한 기존 연구들은 모두 ‘공동체’라는 동일한 대상을 연구했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학문별로 동일한 연구대상인 공동체의 다른 부분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각 분야의 연구결과를 타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공동체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²⁾ 특히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학 분야의 경우 공동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공동체를 주제로 연구한 각 분야의 연구성과 간에는 상호 독립적인 내용보다는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매우 많으며,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종합해야만 학문적 구성개념으로서 공동체를 개념화하고, 종속변수로서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독립변수로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현 시점에서 기존에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기존의 연구경향을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특징을 찾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정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중요한 연구목표로 삼고 있는 행정학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학술분야를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공동체 연구를 조망하는 것은 공동체를 주제로 한 행정학분야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예컨대, 지리학과 건축학에서는 공동체의 지리적 특성과 의식의 관계를, 사회학에서는 상호작용과 공동체의 의식을, 행정학에서는 공동체의 영향력과 활성화방안을 주로 연구하는 등 분과학문별로 공동체의 지극히 일부만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위에 본 논문은 종합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 사회과학 일반, 사회학 등 뿐 아니라 공학, 인문학 등 인접 학문분야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한 연구 논문들을 수집하고 분류한 후,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행정학 분야에서의 공동체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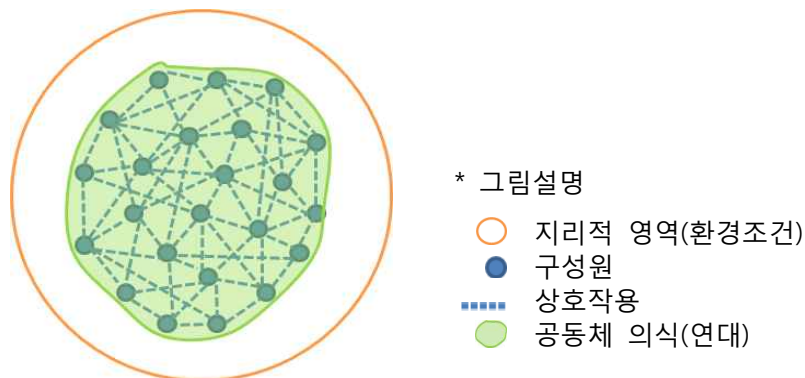
II. 공동체(커뮤니티)의 의의

1. 공동체(커뮤니티)의 개념

공동체(커뮤니티)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정의는 Hillery의 공동체 정의이다(이라영, 2009: 14). Hillery(1955)는 95개의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채택된 공동체 개념들을 분석한 결과 일치되는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69개의 논문에서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적 연계’를 공통적인 개념요소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의 개념을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초기 공동체 연구를 집약하여 산업화 초기에 공동체를 이익사회(Gesellschaft)와 공동사회(Gemeinschaft)로 구분한 Toennies의 공동체의 이념형 연구(1957)에서도 전통적인 공동사회(Gemeinschaft)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혈통(blood), 장소(place), 정신(mind)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들 세 요소는 모두 Hillery(1955)의 지리적 영역(장소), 사회적 상호작용(혈통), 공통적 연계(정신)로 환원된다.

<그림 1>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local community)의 모형



이후 MacQueen et al(2001)은 공동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장소(locus), 공유(sharing), 협력활동(joint action), 사회적 유대(social tie)’의 네가지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유대, 공동의 관점을 공유, 지리적 또는 상황적으로 협력활동에 참여를 통하여 연계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로 커뮤니티를 이해한다(서재호 등, 2012 재인용).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제기된 공동체 개념요소의 효용이 매우 낮아졌다.(Brint, 2001). 특히 Hillery의 1955년 연구시점에 비해 오늘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리적 영역’의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구성원간 상호작용 방식도 면대면 방식에서 단말기대 단말기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상호작용의 속도 또한 매우 빨라졌다(강대기, 2004: 35). 이러한 배경 하에 공동체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보다 공동의 유대감에 치중하게 되었고, 공동체 개념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social network, social capital 등의 개념이 등장하여 물리적 거리와 사람들 사이의 간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기존의 커뮤니티 개념을 보완해 주고 있다(Brint, 2001, 재인용 서재호 등, 2012).

커뮤니티의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할 경우 지리적, 물리적 영향의 감소로 인한 전통적인 커뮤니티 개념의 효용은 감소하지만 특정한 장소상의 제약을 두며 관할권을 중심으로 행정 이 펼쳐지는 로컬커뮤니티(local community)에서는 여전히 지리적·관할권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리적·물리적 조건은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방식에 영향을 주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커뮤니티는 통상적으로 지리적·관할권의 개념으로서 커뮤니티(예컨대, 근린공동체, 도시·농촌 공동체 등)와 관할권내 인간관계의 커뮤니티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Gusfield, 1975). 다만, 이들 두가지 개념적 접근이 상호 배타성을 가진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커뮤니티는 관할권이라는 지리적 요소와 지리적 공동체 내 사람들간의 직업적, 영적, 정서적 상호작용이라는 관계적 요소가 모두 고려된다(McMillan et al, 198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공동체(로컬 커뮤니티)는 ‘일정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공간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재호 등, 2012).

2.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의 중요성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연구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Popplin(1979)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공동적 유대를 회복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개념은 결코 단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사회 속에 소외되고 좌절되는 개개인의 감각과 대립

되는 개념으로 형성된다고 언급하면서 공동체에서의 개인은 일체감과 심정적 통일성을 가지며, 자발성과 전체성의 특징을 가지지만, 분절화된 개인은 소외, 심정적 단절, 비참여, 분절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래영, 2009).

최재원(1976)은 세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을 종합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동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체의 형성은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 된다. 둘째 공동체의 조성은 사회적 안정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 조성은 인간이 가진 비합리적인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특히 정치행정의 차원에서 지방수준에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은 민주적 정부의 건전한 기능을 위해 본질적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공동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Adams, 2001).

또한 공동체 자체는 지방정부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의 웰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개인의 웰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동체 자체의 웰빙 개념이 커뮤니티 웰빙(community wellbeing)으로 제시된 바 있다(서재호 등, 2012).

Ⅲ.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의 틀

1. 연구방법으로서 메타분석

공동체를 주제로 이루어진 국내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메타연구를 실시하였다. 메타연구(meta analysis)는 1976년 Glass가 처음 소개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³⁾ 메타분석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 문헌연구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연구중 관련된 몇 개의 연구결과를 선택하는 기존 문헌분석과 달리 메타분석은 특정 주제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결과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일정한 틀을 통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기존 문헌연구는 현재 탐구하고 있는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부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연구결과나 동일한 연구의 지속적인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특징을 간과하기 쉬우나(Wolf, 1986), 메타연구는 전혀 다른 연구결과나 동일한 연구의 지속적인 결과 속에 전제되어 있는 근본적인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메타분석은 단순한 기존 문헌연구와 다르며 특정분야의 개별연구

3) Field(2001)에 의하면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2,200편 이상의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한다(노정순, 2008).

를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특정 분야의 전체적인 연구경향을 확인하고 규칙성을 밝힐 수 있어 연구성과에 대한 진단과 성찰에 적합하다(Green et al, 1884).

통상적으로 메타분석은 종합적 메타분석과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구분된다(Wallace, 1992). 종합적 메타분석은 기존의 사회학 연구의 전반적인 주제와 방법 등을 분석하여 특정한 분야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분석적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와 분석단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측정된 결과를 개별 측정치화 하여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종합적 메타분석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같은 이론이나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적을 경우 종합적 메타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활용된 방법론 등을 파악하여 연구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판단을 하기에 유리하다(류준호 등, 2010). 개별 학문분과의 연구만을 놓고 보면 현재까지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비교적 그 역사가 짧고, 최근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을 뿐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각광받는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가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각 분야의 공동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체 연구 전체를 조망하고, 전개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여러 분과학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처방을 담당해야 하는 행정학에게 공동체에 대한 국내연구의 메타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자료수집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의 연구논문 이외에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정책보고서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메타분석의 대상을 공동체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으로 한정하였다. 학술지 연구논문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적 가치가 인정될 뿐 아니라, 학문의 발전과정에서 학술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진경란, 2010).

연구대상이 공동체를 주제로 발표된 학술논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종합적 메타연구를 위하여 공동체를 주제로 한 개별적인 연구논문을 선정하고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논문의 검색과 선정을 위해 본 논문은 학술연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키워드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dbpia(www.dbpia.co.kr)’와 ‘kiss(www.kiss.co.kr)’에서 ‘공동체’,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제시하여 검색된 논문을 1차 대상으로 하였고, 1차 검

색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내용을 읽어 ‘공동체(커뮤니티)’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논문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연구의 대상이 공동체가 아닌 경우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외되었다.

검색된 논문 중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선정에서는 연구대상 학술지의 학술분야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전체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준거하여 논문이 작성된 경우 분석대상 논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은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학술논문은 학진등재급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진등재지 선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경우 전문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여 총62편의 논문이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3. 분석항목

1) 학문적 배경

공동체(커뮤니티)는 어느 한 분과가 전유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과에서 이루어졌고, 공동체연구의 결과물인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학술지도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각 분과에서는 어떤 주제로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분과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공동체 연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학문분야에 대한 유형화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기준을 활용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분야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발간한 학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기준 중 대분류와 중분류를 준거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제시된 학술지목록의 분류를 공동체 연구논문의 학문적 배경 분석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대분류는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인문학, 자연과학, 의약학’의 8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대분류별로 하위의 중분류가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학분야는 22개 중범위로 세분화되며, 공학은 28개 분야로, 농수해양은 8개로, 복합학은 8개분과, 예술체육은 12개, 의약학은 38개, 자연과학은 13개 분과로 제시되어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공동체를 연구함에 있어 어떤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연구방법의 기준은 크게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구분된다. 양적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거나, 각종 2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내용 분석을 토대로 계량화된 방법을 활용한 경우, 실험실에서 실험을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적 연구는 역사적 분석이나 규범적 분석을 실시한 경우, 사례연구, 법제도를 분석하거나 기존의 문헌을 고찰한 경우, 문화연구를 실시하거나 민속학적 방법을 활용한 경우, 참여 관찰이나 심층인터뷰를 활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분석단위

공동체 연구에서 분석단위는 크게 개인을 분석할 것인가, 집단을 분석할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을 분석할 경우 이른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통하여 개인의 합을 통하여 집단으로서 공동체를 설명하게 되고, 집단인 공동체 자체를 분석단위로 삼을 경우 개인의 합 이외에 다른 존재로서 공동체를 상정하게 된다.

개인과 집단으로 공동체연구의 분석단위를 탐구할 경우 가장 최소화된 분석단위는 ‘개인’이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인식을 모아 공동체를 설명한다. 집단을 분석단위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illery(1955)가 제시한 공동체의 세가지 구성요소인 ‘지리적 영역, 구성원간 상호작용, 공동의 의식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마을’이라고 부르는 ‘근린’, 근린공동체의 하나로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근린 주거단위로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단지’, 근린보다 넓은 지역으로 행정구역의 최하위 단위인 ‘읍·면·동’, 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이 부여된 특정한 영역인 ‘시·군·자치구’, 가장 넓은 대상으로 한 국가의 사회자체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론적 연구에서는 공동체 개념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석단위는 공동체일반이 된다.

4)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목적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출발은 이론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론이 구축되면 이론이 설명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descriptive)적인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수립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물론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거나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공동체의 경우 특히 지리적 영역, 상호작용, 유대

감이라는 통상적인 세가지 개념요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5) 연구주제

공동체 연구에 대한 기존의 메타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주제를 분류하기 위해서 귀납적 접근을 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연구 주제의 유형은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한 62개 논문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후 이들 연구가 채택한 연구주제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주제의 유형은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 실태, 공동체의식, 공동체 운동,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도구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동체 형성의 7가지 유형이다.

<표 1> 탐색적 메타분석의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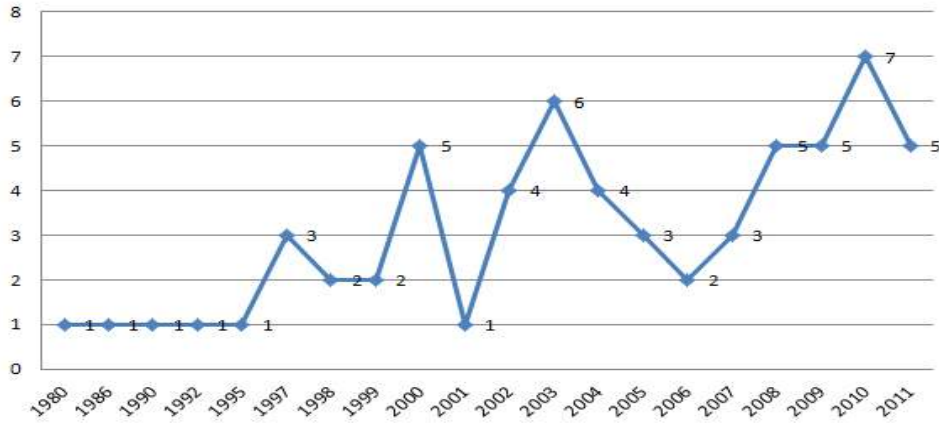
분석항목	내용
학문적 배경	대분류: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과학 중분류: 8가지 분야의 대분류별로 다양한 중분류 학술분야가 분류됨
연구방법	양적연구방법: 설문조사, 2차 자료분석, 내용분석, 실험 등 질적연구방법: 문헌연구(규범적 접근), 사례연구, 문헌연구, 법제연구,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
분석단위	개인, 근린, 아파트단지, 읍면동, 시군구, 사회, 공동체 일반
연구목적	이론구축, 규범적주장, 실증, 기술(description), 정책제언, 수준측정
연구주제	공동체개념(의미, 이론, 구성요소, 특성), 공동체 실태, 공동체의식, 공동체운동,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체 형성

IV. 분석결과

1. 공동체를 주제로 한 발표논문수의 연도별 변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발표된 공동체 관련 연구의 논문편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1986년, 1990년, 1995년 학술지에 각 1편씩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1998년 이후에는 매년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5편 사이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도별 공동체 관련 학술논문 발표 경향을 보면 2000년 이후 각 학문분야에서 공동체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발표논문 편수의 변화



2. 학문적 배경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기준 중 대분류와 중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공동체에 대한 연구주제를 발표한 발표학술지를 분석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의 학술연구분야 구분 중 대분류기준은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과학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대분류에 따라 또 다시 세부의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공동체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를 분류·분석하면 어떤 분과에서 주로 공동체가 연구되고 있으며, 어떤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학술지에 대한 구분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용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시되는 대분류와 중분류에 따라 각 학술지의 학문적 배경을 확인하고 이를 코드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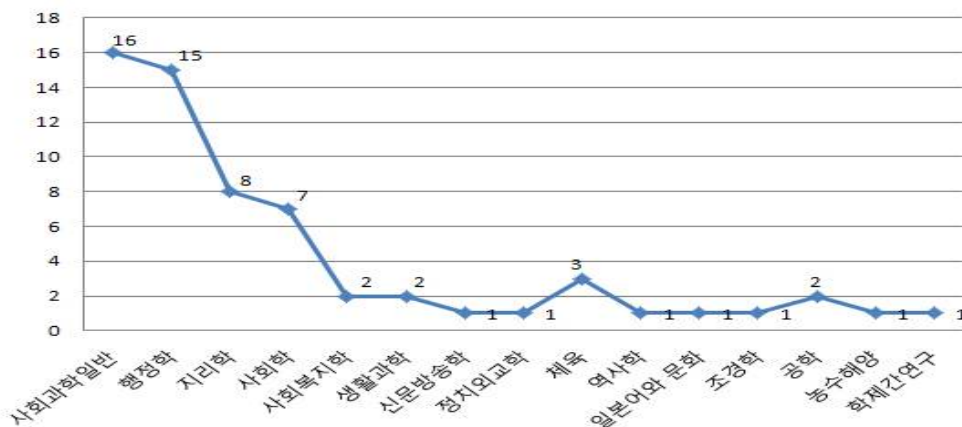
분석결과 공동체 연구는 대부분 사회과학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62편 중 50편), 발표논문 편수는 작지만 의약학을 제외한 전 분야(예술체육 3편, 인문학 2편, 자연과학 2편, 공학 2편, 농수해양학 2편, 복합학 1편)에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대분류 학술구분에 따른 공동체 연구경향



이를 보다 세분화한 중분류로 구분할 경우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학술분야는 사회과학 일반분야로 1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행정학은 1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이외에 지리학 8편, 사회학 7편이 발표되었고, 기타 사회복지학, 생활과학, 체육학, 공학 분야의 학술지가 2-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기타 신문방송, 정치외교, 역사, 일본어와 문화, 조경, 농수해양, 학제간 연구 분야에서는 단 1편의 공동체 관련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그림 4> 중분류 학술구분에 따른 공동체 연구경향



대분류와 중분류에 속하는 학술지 중 공동체에 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현황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비교적 다양한 학술지가 공동체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었으며 41

개 학술지에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표 2> 학문분야의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 논문편수 및 분과별 발표학술지명

대분류	중분류	편수	발표학술지명
사회과학 (50편)	사회과학일반	16	지역사회개발논총(1),지역사회발전연구(1),지역사회개발연구(3),도시연구(3),지역사회개발학술지(1),한국사회정책(1),한국지역지리학회(1),시민사회와NGO(3),대한부동산학회지(1),한국지역정보학회지(1)
	행정학	15	지방자치연구(2),지방행정연구(2),한국정책학회보(2),한국지방자치학회보(2),한국정책과학학회보(2),한국행정논집(1),행정논총(1),도시행정학보(2),한국사회와행정연구(1)
	지리학	8	한국도시지리학회지(4),국토계획(2),국토연구(1),한국지역개발학회지(1)
	사회학	7	한국사회학회(1),한국사회(1),농촌사회(2),경제와사회(1),사회과학연구(2)
	사회복지학	2	한국사회복지학(1),사회복지정책(1)
	정치외교학	1	세계지역연구논총(1)
	신문방송학	1	언론과학연구(1)
예술체육(3편)	체육	3	한국사회체육학회지(1),한국체육학회지(2)
자연과학(2편)	생활과학	2	한국가정관리학회지(2)
공학(2편)	공학	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인문학(1편)	역사학	1	실천민속학연구(1)
	일본어와 문화	1	일본학보(2)
농수해양(1편)	농수해양	1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조경학	1	한국조경학회지
복합학	학제간 접근	1	한국컨텐츠학회지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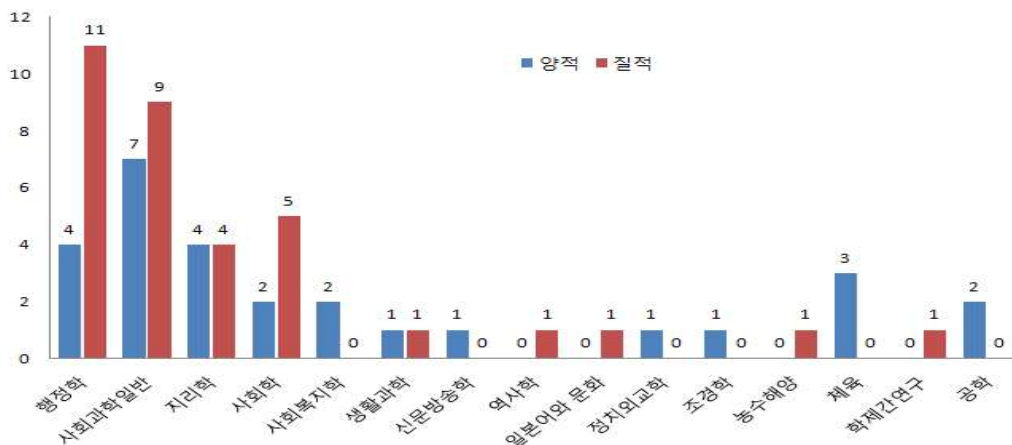
국내 공동체 선행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62편의 논문 중 28편의 논문은 양적 방법을, 34편의 논문은 질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연구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양적 방법은 설문조사, 2차자료 분석 등으로, 질적 방법은 사례조사, 문헌조사, 인터뷰 및 참여관찰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양적 방법을 활용한 28편의 논문 중 25편의 논문이 설문조사를 활용했고, 2차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단 3편으로 조사되었다. 질적 방법을 활용한 34편의 논문은 문헌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18편, 사례조사가 14편이었고, 인터뷰와 참여관찰은 2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국내 공동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

방법구분	세부방법	편수	합계
양적 방법	설문조사	25	28
	2차자료활용	3	
질적 방법	문헌조사	18	34
	사례조사	14	
	인터뷰 및 참여관찰	2	
합계			62

중범위 학술분류를 기준으로 각 분과학술분야별로 공동체를 연구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5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분야중 행정학과 사회과학일반, 사회학 등에서는 양적 방법 보다는 질적 방법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5> 중범위의 학술분류를 기준으로 한 연구방법



4. 분석단위

공동체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는 크게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된다. 국내 공동체 연구논문에서 분석단위로서 가장 많은 논문은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공동체 연구 24편을 보면 대다수의 연구가 ‘공동체의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의 인식을 분석하여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었다.

집단의 경우 마을에 해당되는 근린과 도시형 주거단지인 아파트, 행정구역인 읍면동, 시

군구, 공동체 일반과 사회를 각각 분석단위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순서는 공동체의 지리적 크기가 작은 단위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는 농촌의 마을 또는 도시의 주거공동체로 이루어진 근린으로 나타났는데, 지리적 영역, 상호작용, 공동체유대가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이 면대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는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주거형태로, 근린에 해당되는 새로운 공동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단위로 구분하였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대개 아파트거주 ‘개인’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고, 아파트단지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보다 넓은 지역과 큰 인구규모를 가진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합하면 15개로 많은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관할범위를 공동체의 한 유형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일반과 사회는 이론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분석단위였다.

<그림 6> 공동체 연구의 분석단위



행정학분야 공동체 연구논문의 분석단위를 살펴보면 총 15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은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근린을 활용하였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 비교적 넓은 행정단위인 시군구를 활용한 연구가 3편,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단위인 읍면동은 2편으로 나타났다.

<표 4> 행정학 분야에서 채택한 분석단위

	개인	근린	읍면동	시군구	아파트	사회	공동체일반	합계
행정학	3	7	2	3	0	0	0	15

5. 연구목적

공동체를 주제로 한 국내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구목적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로 나타났다. 이들 실증연구는 대개 개인의 커뮤니티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체활성화의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논문이 3편, 공동체의 개념을 구성하고자 한 연구가 3편, 공동체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연구의 목적으로 이론구축을 위한 논문은 13편으로 나타났고, 공동체의 현상에 대한 기술(記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도 13편이 발표되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인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11편이 발표되었고, 공동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논문이 3편이 발표되었고, 공동체운동의 중요성을 규범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도 2편이 발표되었다.

<그림 7> 공동체 연구의 목적



행정학분야 공동체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논문에서 정책제언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행정학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제언 이외에 이론구축을 위한 논문이 3편, 공동체와 관련된 현상을 기술하는 논문이 3편 발표되었으며, 규범적 주장, 실증, 수준측정을 위한 논문이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표 5> 행정학 분야 논문의 연구목적

	정책제언	기술	이론구축	규범적 주장	실증	수준측정	합계
행정학	6	3	3	1	1	1	15

6. 연구주제

국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기준은 연구의 주제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다양한 특성이 있고, 분과학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공동체 연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망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분과에서 진행된 공동체 관련 논문이 다루는 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80년부터 공동체를 연구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논문이 공동체의식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활성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연구, 공동체개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연구,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한 논문, 공동체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공동체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우리나라 공동체의 실태를 연구한 논문의 순으로 연구되었다.

우선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논문이 다루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예컨대 스포츠 활동, 주민자치활동 등)이 주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유찬, 1997a, 1997b; 장준호, 2001; 이강우, 2004), 지역 공동체 의식의 수준에 대한 연구(김경준, 1998),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김종재, 1992; 김남선 등, 1995; 홍형욱, 2004; 김광복 등, 2005; 성희자, 2006; 강연주, 2009; 백승인, 2010)의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개 공동체 의식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지만, 양덕순 등(2008)의 연구는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구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재개발하거나 침체된 지역사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주거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민창기, 1997; 엄길청, 2009), 외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국내에 소개한 연구(하성규, 2006; 손승호, 2008; 이용균, 2008; 류연택, 2011), 공동체를 행위주체로 상정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연구(하성규 외, 1999; 이선미, 2004; 이선미, 2005) 등이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 중에는 구체적인 구현방안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을 활용한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는데, 이들 논문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단일주제를 논하고 있어 별도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제의 공동체 연구논문은 모두 2000년 이후 발표된 것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천상충일, 2007; 김혜민, 2010)와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연구(김영수, 2009; 진영환,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론적·규범적 접근을 하는 연구(김윤호, 2010; 조규원,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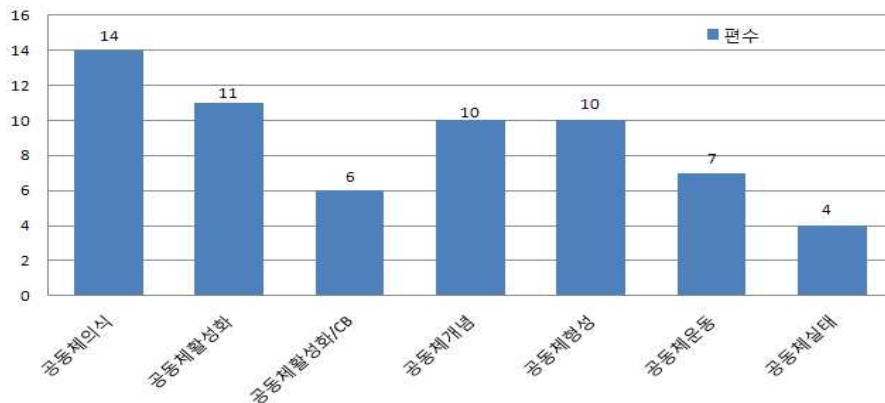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총 10편이 발표되었는데, 이론적으로 공동체 자체의 개념을 이론화·체계화하고자 한 연구(박호강, 1980; 최협, 1986; 채혜원, 2002; 강대기, 2003)와 공동체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김남선 등, 2000; 강철희, 2002; 서종녀, 2009; 홍현미라, 2011)로 구분된다. 특히 공동체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공동체와 지역사회 결속력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연구(전경구, 1998; 하미승 외, 2002; 최근열, 2002; 강은숙, 2003; 양기근, 2009; 김구, 2010)와, 공동체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 연구(강용배, 2003; 임석희, 2003; 한상일, 2003; 유성희, 2008; 차재영, 2010)가 발표되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체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공동체 운동의 이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동체 운동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설한, 2000; 신명호 외, 2000; 배용환, 2003)와 공동체 운동의 실태를 기술하고 정책제언을 시도한 연구(윤인진, 1999; 하성규 외, 2000; 하승우, 2007; 송인하, 2010)가 발표되었다.

끝으로 공동체의 특징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도시지역의 공동체 특징을 조사한 연구(강형기, 1990; 장수찬, 2005; 정형호, 2011), 농촌 마을의 커뮤니티의 다양한 구성과 특징을 제시한 연구(김태연, 2008)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8> 공동체 연구의 주제



공동체 연구주제별 주요 사회과학 학술분야의 발표논문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 일반분야에서는 공동체 실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비교적 많이 발표된 논문주제는 공동체 활성화(5편), 공동체 형성(4편), 공동체

운동(3편)순 이었다. 행정학 분야의 경우 각 주제별로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공동체 형성(n=4), 공동체 활성화(n=5), 공동체 운동(n=3) 분야의 논문이 보다 많이 발표되었다. 사회학의 경우 이론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개념(n=3)을 주제로 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다른 주제의 논문들은 각 1편씩 발표되었다. 지리학의 경우 공동체 의식(n=3)과 공동체 활성화(n=3)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공동체 개념,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제의 논문이 각 1편씩 발표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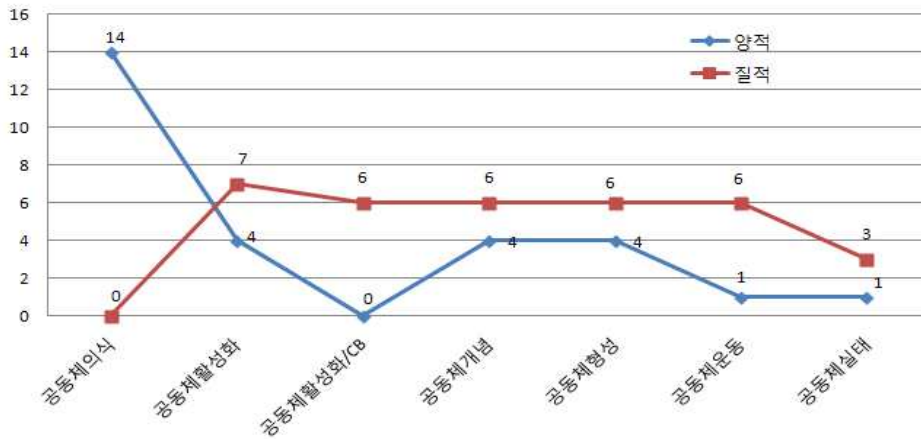
<표 6> 공동체 연구주제별 주요 사회과학 학술분야의 논문 분포

	사회과학 일반	행정학	사회학	지리학	합계
공동체개념	2	1	3	1	7
공동체실태	-	1	1	-	2
공동체의식	2	1	-	3	6
공동체운동	3	3	1	-	7
공동체활성화	5	2	1	3	11
커뮤니티활성화/CB	-	3	1	1	5
공동체형성	4	4	-	-	8
합계	16	15	7	8	46

전반적으로 보면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모든 공동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주제별로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연구주제에 따라 활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을 연구한 모든 논문은 양적 방법을 활용했고(n=14), 주로 개인에 대한 설문을 통한 연구를 진행했다(예: 김경준, 1998; 최열 외, 2006; 양덕순, 2008). 한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모두 질적 방법을 활용했고(n=6),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거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체 운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방법도 한편을 제외하고(예: 하성규 외, 2000), 모든 논문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4) 기타 연구주제별 중범위 수준의 학술분야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개념은 생활과학,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분야에서 각각 1편씩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공동체실태는 농수해양, 역사학에서 각 1편씩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동체의식은 비교적 다양한 분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체육(3편), 공학(2편), 생활과학, 사회복지학, 조경학 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공동체활성화/CB 주제는 일본어와 문화에서 1편,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신문방송학과 학제간연구에서 1편씩 이루어졌다.

<그림 9>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연구주제별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활용한 중요한 분석단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체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과 근린,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단위가 활용되어 비교적 지리적 영역이 작은 단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는 모든 논문에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활용하고 있었다(n=14).⁵⁾ 그 이외에 공동체 개념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개인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공동체의 자산과 결속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분석단위로 개인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고(n=4), 공동체 일반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에서는 공동체 자체의 개념과 이론을 분석하고 있었다(n=4).

<표 7> 커뮤니티 연구의 분석단위별 연구주제

	공동체개념	공동체실태	공동체의식	공동체운동	공동체활성화	공동체 활성화/CB	공동체형성	계
개인	4	0	14	1	0	1	4	24
근린	0	3	0	1	5	4	1	14
아파트	1	0	0	0	2	0	0	3
읍면동	1	1	0	1	3	0	3	9
시군구	0	0	0	2	1	1	2	6
사회	0	0	0	1	0	0	0	1
공동체일반	4	0	0	1	0	0	0	5

5)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의 측정이 개인단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V. 행정학에 대한 함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기존논문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많아져 발표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단일 학술분야로는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어 있으나, 유사한 분야이지만 편의상 다르게 분류되는 지리학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의 경우 행정학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양적 방법보다 질적 방법이 보다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나, 행정학의 경우 질적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보다 많았다. 분석단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데 비해 행정학의 경우 보다 ‘지역적 차원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근린과 행정단위인 읍면동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행정학의 응용성을 잘 반영하여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나 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행정학이 아닌 다른 학문분야의 성과들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이론과 증거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합적 메타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행정학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논문의 발표량에 있어서 더욱 많은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학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응용사회과학으로서 독자적인 로커스와 포커스를 가진 행정학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연구의 실적만으로는 행정학적 시각에서의 공동체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타 분과학문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에서 공동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와 목적, 방법을 활용하여 풍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둘째, 연구방법으로서 양적 접근이 보다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행정학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연구가 질적 접근이 주된 연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로 정책제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는 단1편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실증을 통한 정책제언이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규범적 논의를 거친 정책제언으로 정책제언의 엄밀성과 증명력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실천적인 정책제언을 위해서도 다양한 ‘실증’적인 방법과 증거 위에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계량적 방법의 사용과 가설검증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정학 분야의 공동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행정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분석단위는 마을 혹은 생

활공동체로서 근린이다. 근린은 가장 전형적인 공동체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위로 (강대기, 2004: 200)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행정학 연구에서 근린이 가장 많은 분석단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경계가 모호해 지고 확대되면서 지역공동체로서 근린보다 넓은 단위인 행정단위로서 읍면동과 자치권한을 가진 시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동체의 지역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경우 일반적인 공동체(community)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로 인식되고(박호강, 1980), 이는 근린보다 넓은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의 공동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설명과 정책처방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행정학의 공동체 연구의 분석단위를 행정단위인 읍면동과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행정구역 차원의 공동체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보다 다양한 목적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학 분야의 공동체 연구 목적은 정책제언(6편)이나 공동체 현상에 대한 기술(3편), 공동체이론구축(3편) 등으로 나타나, 공동체를 변수로 활용하는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행정학에서의 공동체 연구는 공동체를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실증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선은 실증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여 실증적인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도에 공동체의 핵심요소를 사회적 자본이나 결속력 및 응집력 등으로 보고 이를 구성하고 측정한 김남선 등(2000), 강철희(2002), 홍현미라(2011) 등의 사회과학 일반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개념이 구성되면 공동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대개 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이강우, 2004; 백승인, 2011 등 연구 참조). 한편 공동체는 다양한 행정의 현상과 효과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으며(예컨대, 공동체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효과 등), 특히 매개변수로 활용되어 동일한 정책이 지역별로 각각 다른 정책효과를 나타낼 때 이를 설명해 주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행정학에서는 공동체의 작동과 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5편), 공동체 형성(4편), 공동체 운동(3편)이 주된 행정학분야의 공동체 관심사로 나타났다. 행정학이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론(개념, 특징, 기능, 가치 등)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기 보다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정책제언과 현상기술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는 최근 공동체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도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가 그리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통해 반증된다. 행정과 정책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 의식, 공동체 실태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체

연구를 활성화한다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된 능력을 가진 정부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공동체(community)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학술분과에서는 많은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진행시켰다.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된 국내의 다양한 기존 연구들은 모두 ‘공동체’라는 동일한 대상을 연구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전제를 가지고 연구가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학문별로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해 공동체의 다른 부분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학 분야의 경우 공동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종합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 사회과학 일반, 사회학 등 뿐 아니라 공학, 인문학 등 인접 학문분야에서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한 연구논문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공동체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행정학 분야에서 공동체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기존논문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많아져 최근으로 올수록 발표논문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적인 공동체 연구경향과 행정학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 단일 학술분야로는 행정학 분야의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어 있으나, 유사한 분야이지만 편의상 다르게 분류되는 지리학과 지역사회 개발을 합하면 행정학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주제로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양적방법보다 질적 방법이 보다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나, 행정학의 경우 질적 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보다 많았다. 분석단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데 비해 행정학의 경우 보다 ‘지역적 차원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근린과 행정단위인 읍면동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에 있어서도 행정학의 응용성을 잘 반영하여 정책제

언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나 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그 결과 행정학이 아닌 다른 학문분야의 성과들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이론과 증거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주체에 있어서도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공동체를 활용한 행정적·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공동체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주체에 있어서 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연구를 토대로 변수중심의 실증을 위한 양적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대기. (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 노정순. (2008). 문헌정보 분야에서 메타분석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46-61.
- 류준호·윤승금·이영주. (2010).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분야, 목적, 방법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1. 124-165.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6-1. 발행예정.
- 이라영. (2009).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의식과 외부 공간구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진경란. (2010). 게임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게임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127-176.
- 최재원. (1976). 대도시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의 개발. 사회복지연구. 5. 1-20.
- Adams, D. (2001). Community in Public Policy: Fad or Foundation?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0-2. 13-23.
- Brint, S. (2001). Gemeinschaft Revisited: A Critique and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Concept. *Sociological Theory*, 19-1. 1-23.
- Etzioni, A. (1964). *Modern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Green, B & Hall, J. (1984).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37-53.
- Gusfield, J.R. (1975). *The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Harper Colophon.
- Hillery, G.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McMillan et al.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Popplin, D.E. (1979).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MacMillan Publishing Co.
- Proshansky, H.M. et al. (1983).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 Toennise, F. (1957). *Community and Society*. New York: Harper Colophon.
- Wallace, W.L. (1992).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Ritzer, G.(Ed) *Metatheorizing* (pp.53-68). Newbury Park California and London: SAGE Publication.
- Wolf, F.M. (1986). *Meta-Analysis: Quantitative Methods for Research Synthesis*.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첨부] 공동체 주제 논문 목록

- 강대기. (2003).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농촌사회*, 13(2):7-40.
- 강연주·박종완·임승빈. (2009). 공동주택 중앙광장의 개방 구조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식의 차이. *한국조경학회지*, 37(3): 21-32.
- 강형기. (1990). 청주시 주민조직의 커뮤니티성과 주민지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2(1):75-134.
- 강용배. (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지역사회공동체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189-216.
- _____.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3.
- 강은숙. (2003).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지역공동체 구축에 관한 연구: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2):117-140.
- 강철희·홍현미라. (2002).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3):42-81.
-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211-
- 김 구. (2010). 지역공동체 재창조를 위한 지역정보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탐색.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2): 1-21.
- 김남선·김만희.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2):1-30.
- 김남선·우 룡. (1995).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형성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20(1): 93-110.
- 김영수·박종안. (2009).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167-206.
- 김윤희.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

- 국사회와행정연구, 21(1):275-299.
- 김종재·문병규·신남수. (1992). 도시민의 커뮤니티 의식 구조 요인 분석: 도시민의 거주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9):79-88.
- 김태연·이철우·장동필. (2008). 농촌 커뮤니티의 지역별 다양성에 관한 연구: 아산시와 청도군 농촌 마을 사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6(1):91-113.
- 김혜민. (2010).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나가타현 이와후네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3):171-195.
- 류연택. (2011). 미국의 도심 커뮤니티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1):35-48.
- 민창기. (1997). 아파트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방안: 평택 지역의 실험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2(2):65-89.
- 박호강. (1980). 공동체의 개념적분석과 이론적 역할. 지역사회개발논총. 3: 25-46.
- 배응환. (2003). 지역공동체의 지방거버넌스모형: 충남의 지방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59-90.
- 백승인·김유리·이제선. (2010). 담장허물기 사업이 거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및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단독주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1): 181-200.
- 서종녀·하성규. (2009). 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국토계획, 44(2): 183-193.
- 성희자·전보경. (2006).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149-170.
- 설 한. (2000). 공동체주의: 협동, 책임, 참여의 정치사회학, 도시연구, 6:1-31.
- 손승호. (2008). 일본 지방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내발적 발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27-39.
- 송인하. (2010). 마을공동체 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방자치연구, 14:33-64.
- 신명호 등. (2000). 도시 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6:51-81.
- 양기근. (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249-256.
- _____. (2011).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전략: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2):73-96.
-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엄길청·최희환. (2009).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복합주거단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157-180.
- 유성희. (2008).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부산 YMCA의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6(1): 149-184.
- 윤인진. (1999). 한국의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 2:199-238.

- 이강우·홍상민·이제승. (2004). 주민자치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5):625-633.
- 이선미. (2004). 지역공동체 활동과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NGO. 2(1): 43-75.
- _____. (200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와 NGO. 3(1): 173-205.
- 이용균. (2008). 호주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15-26.
- 이유찬. (1997). 스포츠 활동이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의 개인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6(2):86-97.
- _____. (1997). 스포츠 활동이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의 지역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131-142.
- 임석희·이철우·전형수. (2003).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314-328.
- 장수찬. (2005).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전개: 전민동 주민의 사회생활 및 정치생활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3(2): 303-
- 장준호·이인혁. (2001). 주민자치활동과 커뮤니티 의식 수준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2):15-26.
- 전경구. (1998). 주민참여형 근린개발과 도시근린공동체.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103-128.
- 정형호. (2011). 20세기 서울 지역 도시공동체의 특징과 변모양상. 실천민속학연구, 17: 285-320.
- 조규원·최조순·김중수.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 도시행정학보. 24(1):263-281.
- 진영환·김진범. (2010).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와 도시재생사업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5: 181-196.
- 차재영. (2008). 지역신문과 지역공동체의 구축. 언론과학연구, 8(4): 592-627.
- 채혜원·홍형욱. (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33-44.
- 천상총일. (200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대한 일고찰. 일본학보, 73:297-307.
- 최근열·장영두. (2002).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공동체형성의 가능성과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59-180.
- 최재승. (2000) 도시주거 공동체의 이론적 성격과 공동체 행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04
- 최 협. (1986). 한국사회·공동체·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회, 20:15-33.
- 하성규. (2006). 커뮤니티 주도적 재개발의 새로운 접근: 영국의 근린 재개발전략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2):25-47.
- 하성규·서중균. (2000).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7(1): 271-299.
- 하성규·신중진·장세훈·홍인욱·서중균. (1999).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도시연구,

5:198-219.

하승우. (2007). 한국의 지역사회와 새로운 변화전략의 필요성. 경제와사회, 75:76-

한상일. (2003). 지역공동체 참여에 대한 자산중심적 사례분석: 로스앤젤러스 시로 부터의 교훈. 한국행정논집, 15(4): 999-1201.

홍현미라. (2011). 지역사회 응집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55-276.

홍형욱·채혜원(2004).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관리,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95-105.

<논문접수일: 2012.01.09. / 심사개시일: 2012.01.26. / 심사완료일: 2012.02.03.>